하오(好) 중앙출장뷔페 www.jawh.co.kr
중앙웨딩홀 뷔페
백일, 돌, 회갑, 고희연, 집들이, 예식, 개원식, 각종모임등
Tel. 031)536-1868, 2555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Pocheon sinmun
【주간】 1990년 1월 15일 창간 ☎ 031-542-1506~7
제393호 2007년 10월 30일 화요일

돌, 백일/ 회갑, 고희연/ 각종 모임행사
용정웨딩홀 · 뷔페
Tel:031)533-4466 Fax:031)536-4466

포천시의원 연봉 市民과 議員 시각차 커

시의원 대폭인상 요구에 시민들은 큰폭 인상 절대 반대

2008년도 포천시의원 연봉을 결정하기 위한 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 26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2008년 포천시의원 보수결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토의를 가졌다. 이어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범위 결정의 건과 월정수당 결정방법 결정의 건,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의 건에 관해 논의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 등 매월 11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월정수당 결정방법은 무기명 투표법과 산술평균법이 제시되어 논의 끝에 무기명 투표법으로 생활비와 지역주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7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무기명 투표법은 의정비심의위원 개개인이 월정수당을 무기명으로 제시한 후 발표하고 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방법이다. 무기명으로 투표한 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하게 된다.

포천시의원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40명 가운데 유효응답자 607명 중 57.4%에 해당하는 362명이 현행 포천시의원 연간 보수 2천760만원이 적당하다고 답변했다. 또 증액해야 한다는 응답이 21.7%인 137명과 줄여야 한다는 답변은 20.9%인 132명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의 보수가 증액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보다 능력 있고 자질 있는 후보자가 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금 좋아질 것이다 238명(39.2%)와 능력 있는 사람출마 217명(35.8%)으로 좋아질 것 없다 152명(25%)을 크게 앞섰다. 이같은 결과는 시의원 보수를 인상할 경우 능력있는 사람이 시의원 후보로 많이 출마해 시의회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천시의원 보수수준이 월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월 230만원이라는 답변이 157명으로 전체 26.7%를 차지했다. 또 월 250만원-300만원 선이 적당하다는 견해가 137명으로 23.3%,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40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 200만원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전체 26.2%인 154명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지난 19일 포천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한 사람 64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했다.

주민설문 조사결과는 시의원 봉급 인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 시의원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의원 봉급을 인상할 경우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사람들이 입후보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의원 연봉 결정안에 대해 포천시민과 시의원간 의견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민의 반응

시민 K씨(56세)는 "시의원 가운데는 의원행세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의정활동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인상을 크게 해줘도 무방하겠지만 전체 시의원 봉급을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어떤 시의원은 현재 지급하는 2천760만원도 아깝다"고 말했다.

시민 P씨(60세)는 "시의원들은 대부분 자기 사업 혹은 다른 업종과 겸업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그런데 봉급을 인상해 달라니 말이나 되나. 그리고 현재 시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알고 출마했는데 이제와서 봉급을 대폭 인상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원의 반응

A모 시의원은 "유급제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포천시의원 의정활동 범위를 감안한다면 5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비가 보장되지 않아 물려받는 땅을 팔아 의정활동하고 있다. 유능한 사람이 의회의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의정비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모 시의원은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역구를 감안한다면 무보수 명예직일때 2천200여만원이었는데 교통비 등을 감안한다면 현행 2천760만원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5천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억새꽃 축제 100만명 찾아

'가을, 휴식 그리고 낭만…' 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1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가 16일간의 여정을 접고 28일 막을 내렸다. 지난 13일 개막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축제기간 동안 10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억새꽃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다. 또 명성산 억새군락지에는 '억새밭 작은음악회' 를 열어 색소폰, 오카리나, 트럼펫 등의 공연을 펼쳐 등산으로 지친 등산객들의 심신을 달래주고 자연과 음악이 하나되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으며 '억새밭 빨간 우체통-1년 후에 받는 편지' 를 운영해 등산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지금 포천은 이렇다 ㊹
재판계류중인 시의원 시민헌장 낭독 논란

시민과 시의원 … 시민 우롱한 처사

시의장, 부의장 시민헌장 낭독은 관례로 문제없다

지난 10월19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5회 포천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선거법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포천시의회 K모 시의원이 포천시민 헌장 낭독을 한 것에 대해 시민은 물론 시의원들까지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오전 체육과 문화행사에 이어 오후 4시 14개 읍면동 주민과 재경포천시민회, 포천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인 중국 화이베이시와 우크라이나 등 주한 외교사절단 등 포천시 추산 1만여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기념식 도중 예상하지 못했던 K모 시의원이 포천시민헌장을 낭독하자 시민들은 의아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기념식이 진행되는 동안 여기저기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이 시민헌장을 낭독하다니 창피할 노릇"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포천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자숙하고 근신해야 할 사람이 시민들 앞에서 시민헌장을 낭독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A모 시의원은 "포천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민헌장 낭독은 관례상 부의장이 하기로 되어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유죄 무죄를 떠나 범죄행위로 인해 기소된 사람이 자숙은 못할망정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부의장이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행사 15일전에 부의장 다음 서열인 운영위원장이 시민헌장을 낭독하도록 결정했다가 행사 당일 운영위원장에게 통보도 없이 교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K모 의원의 유죄 무죄를 떠나 근신하고 자숙해야 할 사람이 공식석상에 나타난 것 자체부터가 공인으로서 도덕적인 결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이다.

또 다른 시의원은 "포천시민의 날 행사 당일 시민헌장 낭독이 부의장으로 결정나자 시의원을 대표해 한 의원이 의장에게 부의장은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법의 심판을 받고있는 사람이 시민헌장을 낭독한 것은 의원 모두의 망신이라고 생각해 행사 보이콧트까지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시민 L모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이 공식석상에 나서면 안된다"면서 "더군다나 재판에 계류중이면서 병보석으로 나온 사람이 당당하게 대외활동을 하고 시민헌장을 낭독한 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시민 K모씨는 "솔직히 그사람은 패기있고 추진력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지금은 근신해야 할 때다"면서 "나서야할 때와 내세울 때가 따로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있느냐?"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바보냐? 의원들의 비도덕적인 문제가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난에 대해 이강림 시의회 의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 부의장이 시민헌장을 낭독한 것은 관례로 해 왔기 때문에 제약받을 이유가 없었다"면서 "재판에 계류중이라고 하더라도 행동을 재제할 사항은 아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법적인 검토는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이 있게 마련이다"면서 "반대쪽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보면 동료 의원으로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민의 날 행사 전날 부의장 본인이 낭독하겠다고 해서 행사 당일 운영위원장에게 말하니까 일방적으로 불편한 감정표현을 했을 뿐"이라면서 "동료의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문제화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논쟁 대상인 K모 시의원은 공무원에게 부탁해 석산개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석산개발업체 업자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12일 구속되었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올해 모 단체에 현금 30만원을 쥐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社 告

불우이웃돕기 창구

본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직접 성금을 본지에 접수하거나 아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2006년09월30일부터 2007년10월30일까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 에 성금을 기탁하신고마운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것은 고마움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금이나 물품을 받으신 분들도 아래와 같이 밝혀 서로 돕고 사는 정신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통장으로 계좌 입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으로 서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성금 및 물품접수내역

· 윤이용 (주)동성사 대표이사	300,000원
· 김종현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고문	200,000원(자동이체)
· 강수동 (재)동천장학회 이사장	200,000원(자동이체)
· 권혁주 포천제일교회 목사	100,000원(자동이체)
· 한명숙 청풍삼계탕 대표	100,000원(자동이체)
· 박노현 용아섬유(주)대표이사	100,000원(자동이체)
· 박병식 이동맛갈비 대표	50,000원(자동이체)
· 강옥자 늘봄꽃화원 대표	20,000원(자동이체)
· 송우리지역 노래연습장 모임 김한성 회장 외 회원일동	100,000원(월 정기이체)
-열린노래방 대표 김영철	
-원 노래방 대표 강수남	
-샵 노래방 대표 정종림	
-오아시스 노래방 대표 정동극	
-팝콘 노래방 대표 김진희	
-M·S노래방 대표 김한성	
-퀸 노래방 대표 정수환	
-초콜릿 노래방 대표 이민철	
-2차 노래방 대표 하춘자	
-유행가 노래방 대표 채경순	
-둘리 노래방 대표 김영찬	
-코러스 노래방 대표 이재정	

▶▶ 성금 및 물품전달내역

-박정재 독거노인	200,000원
-김옥근 독거노인	200,000원
-유가영 일동초등학교 1학년	200,000원
-차주용 일동초등학교 6학년	200,000원
-유필규 독거노인	200,000원
-김상태 장애인	200,000원
-김예령 이동초등학교 2학년	200,000원
-정소영 이동초등학교 6학년	200,000원
-김영분 독거노인	200,000원
-박귀례 독거노인	200,000원
-김만섭 영북중학교 1학년	200,000원
-고영빈 영북중학교 2학년	200,000원
-최은경 영북중학교 3학년	200,000원
-해뜨는 집(원장 박진수)	200,000원

불우이웃돕기 문의 031-542-1507 계좌 : 농협 585-01-015241 (주)포천신문사

GOEUN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기술력과 서비스 제공

주인정신 · 성실시공 · 실력배양

취급공사
- 한전
- 공장
- 학교·관공서
- APT
- 병원
- 가로등·신호등
- 빌딩
- 호텔
- 인테리어
- 기계소방
- 전기소방
- 상가 및 기타

최 두 열
대표이사

2007 포천한전 단가업체

"열린경영으로 기업의 최고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고은종합전기(주)
본사 :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전화 : 031)542-9771~4 / Fax : 031)542-1115